

20세기 서양 패션에 나타난
동양 복식의 형태미에 관한 연구(I)
- 보그(Vogue)지를 중심으로 -

The Form of Oriental Dress Depicted on the 20th Century Western Fashion(I)
- Selected from Vogue -

전주 기전여자전문대학 김 윤 희
서울대학교 김 민 자

Dept. of Fashion Design, 'Kijeon Women's Junior College
Full-time Instructor : Kim Yoonh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
Assistant Professor : Kim Minja

目 次

I. 서 론	IV. 「Vogue」지에 나타난 동양 복식의 형태와 성(性)의 상징성
II. 문화적 관점에서의 복식	
III. 복식의 형태와 그에 따른 성(性)의 상징성	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external form and internal symbolism of oriental dress on the 20th century western fashion. Documentary studies and objective studies were done with descriptive, inductive and content analytic methods.

In documentary research, concepts about culture, dress as a cultural sub-system, the form of dress, and the gender symbolism of dress were reviewed. In objective research, oriental fashion photographs in 「Vogue」 during 1969-1989 were selected and analyzed, for the descriptions of samples, the form of dress, the perception of waist parts, the dressing manner.

The synthetic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the geographical and national terms such as east, Orient, China, India, Japan, and so on in the descriptions of samples; and there were the costume terms such as harem, kimono, pyjama or pajama, sarong, and so on in the descriptions of samples.

2. The form of oriental dress on the 20th century western fashion was identified with draped type.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in orient, there was no desire to reveal body figure through dress, therefore, for the long time, sustaining draped type of dress has been.

3. The perception of waist part in oriental dress on the 20th century western fashion was not made. So, it can be interpreted that in orient, there was no desire to distinguish both sexes through the emphasis of waist part in dress.

4. The dressing manners of oriental dress on the 20th century western fashion were wearing of trouser and layering mainly, symbolizing the confusion of gender distinction through dress.

I. 서 론

복식은 한 시대, 사회, 문화 의식을 표현하는 동시에, 이를 내재하고 있는 문화적 통합체이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복식은 각 나라, 민족, 문화권에 따라 독특한 의미와 형태를 지니고 있어 복식을 통해 문화권을 구별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간의 전파의 영향도 볼 수 있다. 한 문화권 내에서 하위문화(subordinate culture) 복식의 특성과 요소가 모문화(mother culture)에 전파되어 모문화의 복식을 변화시킨 예는 히피, 펑크 등에서 볼 수 있으며,¹²⁾ 복식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화의 전파는 서양(유럽, 미국 등)과 비서양(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 간의 복식 특성과 요소의 전파에서 볼 수 있다. 서양 복식의 특성과 요소가 비서양 지역에 전파되어, 비서양 지역의 복식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하여 Anspach,³⁾ Anspach과 Kwon,⁴⁾ Matthews⁵⁾ 등이 연구하여 왔다. 또한 비서양 지역 복식의 영향을 서양 복식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동양 복식의 특성과 요소의 전파는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 이래 있어왔음을 복식사학자 Payne,⁶⁾ Crawford⁷⁾ 등은 지적하고 있다. 최근 20세기에 들어와, Poiret는 동양 복식의 특징과 미를 바탕으로 현대 복식을 창조하였으며⁸⁾ 1980년대 이후 다른 문화권에 대한 관심⁹⁾과 미국 닉슨 대통령의 중공 방문¹⁰⁾ 등으로 동양 복식의 특성과 요소는 서양 패션에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되기에 이르렀다.

20세기의 이러한 서양 복식과 비서양 복식, 특히, 동양 복식의 혼합 과정은 복식 연구의 한 과제로서,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재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서양 복식(Western dress)이라든가, 비서양 복식(non-Western dress)이라

고 구분되고 있는 복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외적 조형성 내지는 내적 상징성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¹¹⁾

복식사는 복식의 형태상의 변화에 대한 서술이나 묘사보다는, 복식과 그 형태·기능의 변화와 변화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하며¹²⁾ 복식의 품목별, 시대별 고찰로부터 예술양식사 및 미학¹³⁾ 내지는 인류문화사 및 사회·심리학과 연관된 고찰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Daly¹⁴⁾는 의류학 분야의 지배적인 분석적·실험적(analytic-empirical) 관점에 대해 기술적·설명적(descriptive-interpretive) 관점을 제안하고 있고, Little-11¹⁵⁾은 복식은 문화에서의 복식 사용의 맥락에서 더 통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 방법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설명과 해석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는 가정(hypothesis)과 제안점을 연구자가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귀납적(inductive)이라 할 수 있다. Paoletti¹⁶⁾는 복식사의 전통적 연구방법의 대안(代案)으로서,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자료에서 수량적 자료를 얻기 위한 방법인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을 제시하여 객관적인 자료 분석과 해석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식에서 나타나는 문화 전파의 한 예로, 서양 복식에 나타난 동양 복식의 외적 양식으로서의 형태와 내적 내용으로서의 성의 상징성에 대하여 기술적(descriptive), 귀납적 연구 방법으로서, 문헌을 통해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 문헌적 연구를 거쳐, 연구 문제를 더욱 구체화한 후, 연구 문제의 좀 더 객관적인 해결을 위해 내용분석법으로 실증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II. 문화적 관점에서의 복식

1. 문화의 일반적 개념

문화의 개념에 대해 Tylor²⁷⁾는 “사회 구성원인 인간에 의해 획득된 지식, 신념, 도덕, 법, 관습, 예술 내지는 기타 능력, 습관을 포함한 복합적 전체”로서 정의내리고 있으며, Kroeber와 Kluckhohn²⁸⁾에 의하면 문화는 표현된 문화와 내재된 문화의 유형으로 구성되고 상징적인 인간 행동을 포함하며, 인간 집단이 이룬 특정한 성취를 포괄하여 예술품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문화는 변화하는데, 인류학자들은 문화의 변화 형태(pattern)에 대해 진화(evolution), 전파(diffusion), 문화 변용(acculturation)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²⁹⁾

진화는 이전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수정을 통한 다양성의 창조와 이전 것에서 나와, 그 보다 발전된 형태를 낳는 진보의 두 과정으로 설명된다.³⁰⁾

전파는 단지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요소나 특성의 퍼짐을 말한다.³¹⁾ 이 점에서 문화의 특성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옮겨지는 문화화(enculturation)와 구별된다. 서로 다른 사회 간의 유사한 문화적 속성을 설명하는데, 전파는 만족할 만한 것으로, 전파는 사회 문화적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정 문화의 특성을 형성하고 변화의 비율과 방향에 영향을 준다.³²⁾

문화 변용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여러 집단이 상호 접촉을 통하여 어느 한 쪽, 혹은 양 쪽 집단의 종래 문화 내용에 변화를 일으켰을 때 보이는 현상으로 정의된다.³³⁾ 전파는 문화 변용의 한 부분이고, 문화 변용은 문화적 변화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전파는 항상 문화 변용의 과정에서 일어난다.³⁴⁾

문화는 변화함에 있어서 진화, 전파, 문화 변용의 세 형태를 지닌다. 그 가운데에서 전파는 단지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요소나 특성이 퍼지는 것이고 문화 변용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접촉에서 오는 변화로서, 전파는 문화 변용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문화 체계 일부로서의 복식

복식은 문화 체계의 일부(cultural sub-system)로서, 특정 문화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문화를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복식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서로 구별되는 문화 구성 요소, 즉, 기술, 사회 구조, 이데올로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술은 물질적 문화를, 사회 구조는 사회적 행동을, 이데올로기는 신념, 태도, 가치 등을 일컫는다.³⁵⁾ White³⁶⁾는 “인간의 행동은 상징적인 행동으로, 상징적이 아닌 것은 인간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이는 문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 양상으로서의 인간 복식의 존재를 설명해 준다.³⁷⁾

문화 체계의 일부로서 복식에서도 문화 전파 현상을 볼 수 있다. 문화를 문화력의 크기에 따라 모문화(mother culture), 하위문화(subordinate culture)로 나누어 볼 때,³⁸⁾ 하위문화 복식이 모문화 복식에 영향을 준 예를 테드(Teds), 히피(Hippies), 펑크(Punks) 등에서 볼 수 있다.^{39,40)}

이러한 한 문화권 내에서 하위문화 복식이 모문화에 미친 영향 외에 서로 다른 문화권 간의 복식 문화 전파의 예로 동·서양 지역 복식 간의 상호 영향을 볼 수 있다.

3. 20세기 비서양 지역의 서양 복식 전파에 대한 고찰

문화는 다른 문화로부터 기술·정치·경제 발전의 전파로 계속 수정되며, 이 변화들은 복식에 뚜렷이 반영된다.³¹⁾ 특히, 고유의 대상과 사고에서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외부의 사고와 대상에 동화되는 과정에 대해 Eicher와 Erekosima³²⁾는 선택(selection), 특성 부여(characterization), 결합(incorporation), 변형(transformation)의 네 가지 문화적 증명(cultural authentication)의 수준으로 설명하였다.

다른 문화권 간의 복식의 전파, 특히 동·서양 문화권의 복식 특성과 요소의 전파에 대한 연구는 주로 비서양 지역에서의 서양 복식의 전파와 수용에 대한 것이었는데, Anspach³³⁾은 1966년 12월에서 1967년 1월까지 태국의 방콕에서 타이 여성의 패션 인식에

대해 연구하였고, Anspach과 Kwon³⁴⁾은 1972년 우리나라에서 연령, 교육, 직업으로 집단을 나누어 495명의 한국 여성이 채택한 서양 의복 스타일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또, Matthews³⁵⁾는 아프리카 가나(Ghana) 여성들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의 전통성의 단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서양 복식의 어떤 특징이 왜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었고, 패션의 수용에 있어서 문화를 다른 문화와 구별, 설명해주는 중요한 것은 패션 아이템의 물리적 특징들에 대한 태도와 의복에 부여한 상징적 의미임에도³⁶⁾ 그것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하겠다.

Ⅲ. 복식의 형태와 그에 따른 성(性)의 상징성

1. 복식의 일반적 형태

복식은 인간에게 입혀져서 인간의 신체와 함께 움직이는 조형이다.³⁷⁾ 복식 조형은 인간에게 밀착되어 있어서 곧 인간 자체의 감정이며 하나의 이미지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³⁸⁾

복식의 현재의 모습이나 과거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여, 인종에 따라, 지역 환경에 따라, 생활 문화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극히 많은 종류로 분화되어 있다.³⁹⁾ 다양한 복식의 형태를 분류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식의 기능성에 의한 분류와 복식과 인체와의 관계에 의한 분류를 들 수가 있다.⁴⁰⁾ <표 1>에 의하면, Mützel,⁴¹⁾ Flügel,⁴²⁾ Horn과 Gurel,⁴³⁾ Laver⁴⁴⁾ 등은 주로 인간의 환경적 요인인 기후에 대한 적응과, 기후 등에서 비롯되는 생존 방식과 자원(의복 재료)을 고려하여 기능성의 관점에서 복식 형태를 분류하고 있다. 또, 小川安朗,⁴⁵⁾ Boucher,⁴⁶⁾ DeLong,⁴⁷⁾ Roach와 Eicher,⁴⁸⁾ 등은 복식과 인체의 관계로 인지론적 측면에서 복식의 형태를 분류하고 있다. 이 때의 복식에는 인간의 성(性)에 따른 미의식이 표현될 수 있다고 하겠다.

Roach와 Eicher의 분류는 비서양 복식의 형태를 구분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으나, 복식 전체로서의 구분보다는 복식을 부분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⁵⁰⁾ Horn과 Gurel, Laver

는 기능성에 따라 분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문화적 요소, Gestalt적 요소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인체와 복식의 관계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운 지방에서 짐승의 가죽으로 처음 만들어진, 체형에 따라 재단, 재봉되어 절연력이 큰 테일러드형, 재단하지 않고 직조된 천의 길이대로 단 순히 걸쳐입는 것으로, 넓은 수직 베들이 개발된 농경 문화에서 시작된 드레이프드형, 가죽 재봉의 문화와 방직 문화의 접촉으로 생긴, 테일러드형 복식과 드레이프드형 복식의 혼합형⁵¹⁾⁵²⁾으로 대표되는 이 분류는 복식의 형태를 구분하는 데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동양 복식의 형태

인간의 복식에서 서양 복식(Western dress)과 비서양 복식(non-Western dress)의 구분에 대하여, Roach와 Musa⁵³⁾는 13세기 이전은 동양에서 서양으로 문화의 전달이 이루어졌으나, 13세기 이후는 이의 역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 시기 이후 15세기에 완성되어 서양에서 입어온 복식을 서양 복식이라 할 수 있으나, 서양 복식과 비서양 복식을 지리적 위치, 복식의 형태, 재료의 재단·조작 방법의 차이로 구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였다.

Fairservis는 서양 복식이 르네상스 이래 매우 빠르게 변화되었음에 주목하면서,⁵⁴⁾ 변화의 정도에 따라 동·서양 복식을 구분하였다. 서양 복식은 스타일의 변화를 추구하였고,⁵⁵⁾ 동양 복식은 스타일에 따라 변화하기 보다는 전통을 고수하려 하였다고 하였다.⁵⁷⁾

만약 인간이 수천년 동안 한 장의 옷감으로 몸을 감싸는 권의형의 의복을 계속 착용하여 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의복을 꼭 맞게 만드는 기술적 능력이 결여된 때문이 아니고, 새로운 의복의 형태를 요구하지 않았거나 의복을 밀착시킴으로써 인체를 표현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욕구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⁵⁸⁾ 서양에서는 최초로 코르셋(corset)을 착용한 것으로 추측되는⁵⁹⁾ 4000년 전의 크레타(Crete)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의복을 인체에 밀착시킴으로써 인체를 그대로, 혹은 과장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가 발달하였는데, 이러한 욕구는 의복의 다양화를 촉진시켰다.⁶⁰⁾ 또한, 임어당이 “서양복은 인체의 윤곽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중국복은 은폐하려 하였다”고 지적하였듯이, 동·서 간에 의복에 대한 견해가 달랐다.⁶¹⁾

따라서 동양 복식은 대개의 경우, 직물의 형태에 기초한 기하학적 형태로 술기가 직선이었기 때문에, 신체에 밀착되지 않고, 신체의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직물의 너비가 좁았고, 직물이 귀했다는 기술적인 문제에서 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 즉 복식을 통해 신체의 윤곽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없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복식과 신체의 밀착 정도와 신체의 윤곽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는 성(性)에 대한 가치관과 연관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3. 복식에 나타난 성 개념

사회에서 가장 뚜렷한 구분은 불변하는 성(性)에 의한 구분이다.⁶²⁾ 두 성 사이의 생리적인 차이는 두

성이 입는 복식 형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⁶³⁾ 복식의 가장 뚜렷한 기능의 하나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게 하는 것이고,⁶⁴⁾ Ellis는 “만일 두 성이 동일한 의복을 입는다면 의복의 중요성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였다.⁶⁵⁾ 남성과 여성의 구분되는 복식, 즉 바지와 치마는 이미 두 성의 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⁶⁶⁾ 서구 복식의 역사에서도 복식의 성 구별은 남자는 바지를, 여자는 치마를 입는 것이 관습이었다.⁶⁷⁾ 그러나, Laver⁶⁸⁾는 복식에서의 성 구별을 바지나 치마로서 하는 것은 많은 예외가 있으므로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Rudolfsky⁶⁹⁾는 역사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치마를 입었고, 여성들도 바지를 입었다고 하였으며, Kefgen과 Touchie-Specht⁷⁰⁾는 동양에서는 남성들이 치마를 입었고, 고대 중국, 인도 등지에서는 여성들이 바지를 입었다고 하였다. 중국에서는 남녀가 모두 바지를 입었고,⁷¹⁾ 이 밖의 남녀의 의복이 같은 몇몇 사회에서는 신체의 장식 등의 구별이 대신 나타난다.⁷²⁾ 그러나, 사회에 따라 성적 특성

〈표 1〉 복식의 일반적 형태

복식의 기능성에 의한 분류		복식과 인체의 관계에 의한 분류	
연구자	분류항목	연구자	분류항목
Mützel (1925)	카프탄형(caftan, kaftan) 드레이퍼리형(drapery) 판초형(pancho, poncho) 튜닉형(tunic)	小川安朗 (1966)	요유형(ligature) 수포형(drapery) 관두형(poncho) 전개형(kaftan) 체형형(tunic)
Flügel (1930)	원시형(primitive) 열대형(tropical) 한대형(arctic)	Boucher (1967)	드레이프드형(draped) 어깨에 걸치는 형(slip-on) 폐쇄된 재봉형(closed sewn) 개방된 재봉형(open sewn) 쉐스형(sheath)
Horn & Gurel (1968)	테일러형(tailored) 드레이프드형(draped) 혼합형(composite)	DeLong (1968)	단일한 형태(uni-form) 다양한 형태(multi-form) 뚜렷함(determinate) 뚜렷하지 않음(indeterminate)
Laver (1969)	피티드형(fitted) 드레이프드형(draped) 중간형(intermediate)	Roach & Eicher (1973)	재구성형(reconstructing) 에워싸는 형(enclosing) 매다는 형(suspended) 둘러감싸는 형(wraparound) 피티드형(fitted) 혼합형(combined) 부착형(attached)

이 강조될 수도 있고, 강조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⁷³⁾ 복식이 갖는 성 구별 기능이 범세계적인 것이라 해도⁷⁴⁾ 역사적으로, 또 문화권에 따라서 복식의 성적 이미지에 차이는 있다.⁷⁵⁾

한편, 두 성의 신체 장식은 한 성을 다른 성으로부터 구별해줄 뿐 아니라, 성적인 유혹을 위해 쓰여져 왔고,⁷⁶⁾ Wastermarck⁷⁷⁾는 의복은 주로 남성과 여성이 상호 유혹하려는 욕구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몇몇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약할 뿐 아니라, 열등하다고 인식되어, 복식의 효과는 여성에게 있어서 더 크게 나타나는데,⁷⁸⁾ Laver는 패션의 목적은 신체의 다양한 성적 부위에 주의를 끄는 것이라 하였다. 이 이론은 “성적 부위 이동설(theory of the shifting erogenous zone)”로서, 여성 패션의 주목적과 패션 변화의 추진력은 반대되는 성을 유혹하려는 욕망이라고 보았다. 특히 여성 신체는 다양한 성적 부위를 선택적으로 노출, 은폐, 강조하는 방법으로 주의를 끄는데, 이러한 부위들은 2차 성징의 부위(예: 가슴, 엉덩이 등)이거나,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신체 부위(예: 다리, 발, 등, 허리, 어깨 등)이다.⁷⁹⁾ 그러나 이 이론은 1760년대 이후 획일화되기 시작한 남성복과 변화가 느리고 강조 부위를 옮기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른 문화권의 복식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게 보인다.⁸⁰⁾

Glynn⁸¹⁾에 의하면, 대체로 서양 사회에서는 허리 부위를 강조해 왔으며 1차 대전 후 복식에서 성적인 구별을 없애기 위해 허리선을 무시했음에서 볼 수 있듯이, 허리 부위는 성적인 구분과 가장 밀접한 부위이다.

여성의 인체중에서 허리와 가슴은 이상적인 미에 대한 규범으로서 자주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여성복 패션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이다.⁸²⁾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의복에서는 성적인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아, 허리와 가슴의 윤곽을 뚜렷이 나타내려 하지 않았다.⁸³⁾

일반적으로 여성 패션의 변화가 두 성 간의 차이에 기인하고, 또 성적 부위 이동설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패션을 해부학적 부위에 대한 강조점의 변화나, 성적 유혹의 연속으로 축소할 수는 없고,⁸⁴⁾ 동·서 간의 성적 차이에 따른 복식의 형태미에 대한 견해는 실증적 연구로서 해석이 필요하

다.

IV. 「Vogue」지에 나타난 동양 복식의 형태와 성(性)의 상징성

1. 연구 문제 및 용어의 작업적 정의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1969년에서 1989년 사이의 서양 패션에 나타난 동양 복식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고, 또 한 용어의 작업적 정의를 행하였다.

① 연구 문제

첫째, 1969년에서 1989년까지의 서양 패션에 나타난 동양 복식의 형태미는 어떠한가? — 복식의 형태, 허리 부위에 대한 인식, 착장법은 어떠한가? —

둘째, 동양 복식에 있어서 복식을 통해 인간이 추구하고자 한 내재적인 미적 가치는 무엇인가?

② 용어의 작업적 정의

— 동양(the Orient): 서양(the Occident)과 비교하여 해가 뜬 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⁸⁵⁾ 유럽의 동쪽으로, 일반적으로는 아시아, 특별한 경우에는 서아시아 혹은 극동을 뜻하기도 한다.⁸⁶⁾ 본 연구에서는 지중해 동쪽의 터키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일본까지의 아시아를 큰 의미에서 같은 복식 문화를 갖는 지역으로 보고, 이 지역을 동양으로 정의하였다.

— 복식의 형태: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서양 패션에 나타난 동양 복식의 가장 일반적 형태를 밝혀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적 정의를 하였다.

• 테일러드형(tailored型): 신체에 밀착되는 형⁸⁷⁾으로 가슴선에서 무릎선까지 신체의 옆선이 드러나는 형태, 즉, 구조적인 형태

• 드레이프드형(draped型): 신체에 밀착되지 않는 형⁸⁸⁾으로 풍성하여 신체의 옆선이 드러나지 않는 형태, 즉, 비구조적인 형태.

• 혼합형(composite型): 테일러드형과 드레이프드형의 특성이 혼합된 형태.⁸⁹⁾

— 허리 부위에 대한 인식: 복식의 형태가 허리 부

위를 중심으로 다르게 이루어지고, 동·서양 간에 복식에서의 허리 부위의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허리 부위에 대한 인식에 관해 다음과 같은 작업적 정의를 하였다.

- 허리 부위 인식: 옷 전체의 형태에서 허리 부위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고 보여지는 상태로서, 허리띠가 옷 전체의 외관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는 형태와 또는 허리선이 절개되어 허리 부위가 꼭 맞는 형태를 포함.
- 허리 부위 무시: 옷 전체의 형태에서 허리 부위가 무시되었거나,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상태로서, 허리띠가 옷 전체의 외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형태와 또는 허리선이 절개되지 않고 가슴선에서 엉덩이선까지 수직으로 떨어지는 형태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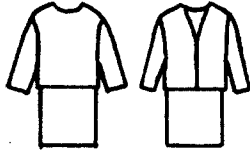
—착장법: 동·서양 간에 착장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착장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작업적 정의를 하였다.

- 원피스 드레스(one-piece dress): 예)



- 투피스 드레스(two-piece d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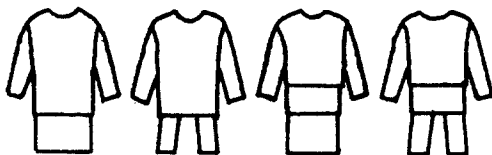
하의가 치마인 경우:
상의와 원피스로 이루어진 경우 포함. 예)



하의가 바지인 경우: 예)



- 레이어링(layering): 튜닉 길이*보다 긴 상의에 치마나 바지를 하의로 입은 경우와 튜닉 길이보다 짧은 상의와 튜닉 길이보다 긴 상의를 함께 입고 치마나 바지를 하의로 입은 경우 예)



*대퇴부의 중간 정도의 길이⁹⁹⁾

2. 자료 수집 및 분석

서양 패션에서 나타나는 동양 복식의 외적 형태미와 내적 상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에서 정기간행되는 패션 전문지인 「Vogue」지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선택시, 미국 「Vogue」지의 1969년 1월호부터 1989년 9월호까지에서 동양을 지칭한다고 보이는 어휘 — 동양의 지역·국가명, 동양의 고유복식명 — 가 있는 여성복의 목에서 발목까지, 정면을 향한 직립 상태의 사진을 채택하였다.

의류학 전공인 2인이 총 418개의 자료에서 분석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선택하여 총 193개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 1) 자료에 서술되어 있는 어휘를 지역·국가명과 고유복식명으로 분리,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 2) 복식의 형태, 허리 부위에 대한 인식, 착장법을 각각의 하위 항목에 따라 빈도수를 측정, 백분율을 계산하고, χ^2 분석을 행하였다.

3. 분석 결과 및 논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다음의 분석 결과를 얻었다.

① 자료의 서술

자료의 지역·국가명 서술에는 east, Orient, China, India, Japan과 기타 Bengal 2회, Korea 1회, Mongo 1회, Turkey 1회가 있었다. 지역·국가명으로 언급된 것에는 China와 Orient가 가장 많았다.

자료에서 고유복식명으로 언급된 것은 하렘(harem), 기모노(kimono), 파자마(pyjama, pajama), 사롱(sarong)이 많았고, 기타로는 장삼(cheongsam 1회), 추리 다스(choori-dars 1회), 쿨리 셔츠(coolie shirts 1회), 가부키 소매(kabuki sleeves 1회), 만다린 코트(mandarine coat 1회), 만다린 자켓(mandarine jacket 1회) 등이 있었다. 고유복식명칭으로 언급된 것 중, 파자마, 기모노가 가장 많았다.

자료의 서술에는 지역·국가명의 언급보다 고유복식명의 언급이 더 많았다.

이 자료의 빈도수는 자료에서 서술된 어휘만으로

〈표 2〉 지역 국가명의 서술-빈도수

지역 국가명	이스트	오리엔트	중 국	인 도	일 본	기 타	합 계
빈도수	8	14	16	8	3	5	54

*총 193개의 자료 중 지역 국가명이 서술된 것만을 제시하였음.

〈표3〉 고유복식명의 서술-빈도수

고유복식명	하 텡	기모노	파자마	사 톱	기 타	합 계
빈도수	8	35	95	22	6	166

*총 193개의 자료 중 고유복식명이 서술된 것만을 제시하였음.

하였으므로 자료총계(193개)와 일치하지 않는다.

② 복식의 형태

테일러드 항목의 빈도가 1로서 분석시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 항목을 제외하고 χ^2 분석을 행하였다. 그 결과 $\alpha=0.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서양 패션에 나타난 동양 복식의 형태는 인체에 밀착되지 않으며 인체의 윤곽선을 드러내지 않은 드레이프드형(draped, 58.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양의 복식은 DeLong³⁰⁾의 분류에서 인체의 윤곽에 대한 음영 없이 평면적으로 보이는 평면적인 형과 유사하며, Roach와 Eicher³⁰⁾의 분류에서는 둘러감싸는 형 내지는 혼합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동양에서는 구조적인 선을 통해 의복을 인체에 밀착시킴으로써 인체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과장하기 보다는 은폐하였고, 의복을 통해 인체의 윤곽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었으며,³⁰⁾ 따라서 의복을 인체에 꼭 맞게 하기 위한 재단법상의 획기적인 발전이 없이 오랜 세월 동안 비구조적인 드레이프드형의 복식 형태를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체의 윤곽을 드러내는 테일러드형(tailored)의 비율(0.5%)이 매우 적게 나온 것이 설명될 수 있다.

또 혼합형(composite)이 41.5%로 나타난 것은 동

양 복식이 서양 패션에 채택되어 대부분의 현대 서양 복식의 형태인 혼합형³⁰⁾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③ 허리' 부위에 대한 인식

χ^2 분석을 실시하여 $\alpha=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서양 패션에 나타난 동양 복식의 형태 중 허리 부위를 강조하지 않는 스타일(63.2%)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는 복식의 형태 구성에 중요한 신체 부위로서, 테일러드형과 드레이프드형의 구분은 허리 부위의 강조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여성의 인체 중에서 허리와 가슴은 이상적인 미에 대한 규범으로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³⁰⁾ 이에 대한 강조 여부는 동·서 간에 차이를 볼 수 있다. 복식에서의 남녀 구별의 뚜렷한 차이가 허리 부위에 대한 인식 여부³⁰⁾였음에 비추어 볼 때 동양에서는 허리 부위에 대한 강조 여부로 남녀를 구별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³⁰⁾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동양 복식의 형태에서 허리 부위를 강조하지 않았음은 동양에서는 복식의 형태를 통한 에로티시즘의 표현이나 성의 구별이 복식의 중요한 기능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하겠다.

〈표 4〉 복식의 형태-빈도수 및 백분율

복식의 형태	테일러드형	드레이프드형	혼 합 형	합 계
빈도수	1	112	80	193
백분율(%)	0.5	58.0	41.5	100

N=192 $\chi^2=5.33*(>3.84) \alpha=0.05$ df=1

〈표 5〉 허리 부위에 대한 인식-빈도수 및 백분율

허리 부위에 대한 인식	허리 부위 인식	허리 부위 무시	합 계
빈도수	71	122	193
백분율(%)	36.8	63.2	100

N=193 $\chi^2=13.47*(> 10.83) \alpha=0.001 df=1$

④ 착장법

χ^2 분석을 실시하여 $\alpha=0.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서양 패션에 나타난 동양 복식은 상의와 바지의 착용(47.7%)과 레이어링(26.9%)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피스나 상의와 치마차림보다 상의와 바지차림, 또는 레이어링의 착장법이 서양 패션에서 오리엔탈 스타일 혹은 오리엔탈 룩을 지칭할 때 현저히 나타나는 착장법이었다.

중국 복식의 특징을 여러 벌을 겹쳐 입는 것이라 할 수 있고⁹⁹ 바지가 몽고족의 남녀, 이슬람 여인 복식의 중요한 아이템이었으나, 서양에서는 주로 남자에게 국한되는 복식이었음⁹⁹에 비추어 볼때, 동양 복식의 착장법에 있어서 바지 착용과 레이어링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서양 복식의 역사에서는 대개의 경우 바지와 치마가 남녀 구별의 역할을 하여 왔으나,¹⁰⁰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복식에서의 성의 혼란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레이어링의 착장법은 신체 윤곽을 은폐하기 위한 한 착장법으로 생각될 수 있겠다.

IV. 결 론

서양 패션의 한 요소로서, 꾸준히 영향을 미쳐온 동양 복식이, 특히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뚜렷한 한 패션 테마로서 나타나고 있어서, 서양 복식과 동양 복식의 외적 조형성 내지는 내적 상징성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적, 귀납적, 내용분석법적

연구 방법으로서, 복식에서 나타나는 문화 전파의 한 예로, 서양 복식에 나타난 동양 복식의 외적 형태미와 내적 상징성에 대하여 문헌적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고, 내용 분석법으로 실증적 연구를 행하였다.

문헌적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식은 문화 체계의 일부로서, 문화의 전파 현상을 복식에서 볼 수 있다. 즉, 모문화와 하위문화 간의, 서양·비서양 간의 문화의 전파로 인한 복식 특성과 요소의 상호 영향을 볼 수 있다.

둘째, 인류의 복식을 형태로서 분류하는 두 가지 관점, 즉 기능성에 의한 분류와 복식과 인체 사이의 관계에 의한 분류가 있다. 동양 복식의 형태는 대개의 경우, 직물의 형태에 기초한 기하학적 형태로 신체에 밀착되지 않고, 신체의 윤곽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인류는 복식을 통해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별, 에로티시즘을 표현해왔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복식의 형태미와 연관시킬 때 여성의 인체 중에서 허리는 이상적인 미에 대한 규범으로서 자주 언급되고 있으나 동양 복식에서는 비교적 강조되지 않고 있다.

실증적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지역·국가명 서술에는 east, Orient, China, India, Japan 등이 있었고, 고유복식명 서술에는 하렘(harem), 기모노(kimono), 파자마(pyama, pajama), 사롱(sarong) 등이 있었다. 지역·국가명으로 언급된 것에는 China와 Orient가 가장 많았고, 고

〈표 6〉 착장법-빈도수 및 백분율

착장법	원피스	투피스		레이어링	합 계
		치 마	바 지		
빈도수	29	20	92	52	193
백분율(%)	15.0	10.4	47.7	26.9	100

N=193 $\chi^2=64.18***(> 16.27) \alpha=0.001 df=3$

유 복식명으로 언급된 것에는 파자마와 기모노가 가장 많았다.

둘째, 서양 패션에 나타난 동양 복식의 형태는 드레이프드형(draped, 58.0%)인 것으로 나타나서, 동양에서는 복식을 통해 인체의 윤곽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었으며,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드레이프드형의 복식 형태를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서양 패션에 나타난 동양 복식은 허리에 대해 인식하지 않는 경향(6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양 복식에서는 허리 부위에 대한 강조 여부로 남녀를 구별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서양 패션에 나타난 동양 복식은 바지(47.7%)와 레이어링(layering, 26.9%)의 차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동양 복식의 착장법에 있어서 바지 착용과 레이어링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문화 전파의 한 예로서, 서양 복식에 나타난 동양 복식의 영향은 역사적으로 꾸준히 있어 왔는데, 특히, 현대 서양 여성 패션에 나타난 동양 복식의 형태는 드레이프드형으로 허리 부위를 인식하지 않는 형태로서, 바지와 레이어링의 차림이 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복식을 통해 인간이 표현하고자 했던 미의식에 의한 결과로서, 동양에서는 복식의 형태를 통하여 인체의 윤곽을 드러내거나, 남성·여성을 뚜렷이 구분하고자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1) 김민자, "2차 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 Teddy Boys, Mods, Hippies, Skinheads와 Punks 스타일의 상징성에 대하여 —", 한국의류학회지, 11권 2호(1987년 8월), pp.69-89.
- 2) Lynne Richards, "The Appearance of Youthful Subculture :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Devianc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988, pp. 56-64.
- 3) Karlyne A. Anspach, "Fashion Consciousness of Thai Women", *Journal of Home Economics*, 60(4), (April 1968), pp.268-271.
- 4) Karlyne A. Anspach and Yoon Hee Kwon, "Western Dress Styles Adopted by Korean Wome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4), (June 1976), pp.235-242.
- 5) Lillian B. Matthews,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ism of Dress and Social Values of Ghanaian Women", *H.E.R.J.*, 7(6), (July 1979) pp.389-398.
- 6)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 Harper & Row, 1965). 이종남, 안혜준, 김선영, 정명숙 역, 복식의 역사 — 고대이집트에서 20세기 까지 — (서울 : 도서출판 까치, 1988), p.141.
- 7) M.D.C. Crawford, *One World of Fashion*(N.Y. : Fairchild Publications, Inc., 1967), p.18.
- 8) 김민자, "아르 데코(Art Deco) 양식과 Paul Poiret 의 의상디자인", 생활과학연구, 13권(1988년 7월), pp.75~78.
- 9) Yung Sen Tong, "Chinese Influence on Selected Designers During The Decades 1961-1980", Master's dissertation, Ohio University, 1984, p.71.
- 10) Ibid., p.83.
- 11) Mary E. Roach and Kathleen E. Musa, *New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Western Dress*(N.Y. : Nutriguides, Inc., 1980), p.2.
- 12) Ibid., iv(preface).
- 13) 정홍숙, "Art Nouveau와 Art Deco 예술 양식을 통해 본 복식(Clothing)의 조형예술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8, p. 15.
- 14) M. Catherine Daly, "Use of the Ethnographic Approach As Interpretive Science Within The Field of Home Economics : Textiles and Clothing as an Example", *H.E.R.J.*, 12(3), (March 1984), p.354-362.
- 15) Mary A. Littrell, "Social and Cultural Analysis of Clothing : Current Research and Methodological Direction", 한국의류학회 1989년도 추계학술세미나 초대강연, (1989년 10월), p.22.
- 16) Jo B. Paoletti, "Content Analysis : Its Application to the Study of the History of Costume", *C.T.R. J.*, 1(1982), pp.14-17.
- 17) Edward B. Tylor, *Primitive Culture :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 and Custom, 2(Gloucester:Smith, 1871), quoted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Culture", by M. Singer(Macmillan Co., 1968), p.527.
- 18) A.L. Kroeber and C. Kluckhohn, "Culture", *Harvard University Peabody Museum of American Archeology and Ethnology Papers*, 47(1), (Cambridge : The Museum, 1952), quoted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Op. cit., p.528.
- 19) Robert H. Lauer, *Perspectives on Social Change*, (Boston : Allyn and Bacon, Inc., 1973), p.193.
- 20) Ibid., p.198.
- 21) Ibid., pp.199-200.
- 22) Marvin Harris, *Cultural Anthropology*, (N.Y. : Harper & Row, 1983), p.10.
- 23) 고영복, 현대사회학, (서울 : 법문사, 1977), p.56.
- 24) Robert H. Lauer, Op.cit., p.203.
- 25) Jean A. Hamilton, "Dress as a Cultural Sub-system:A Unifying Metatheory for Clothing and Textiles," *C.T.R.J.*, 6(3), (Spring 1988), p.2.
- 26) L.A. White, *The Science of Culture*, (N.Y. : Farrar Straus and Giroux, 1969), quoted in Jean A. Hamilton, Op. cit., p.3.
- 27) Jean A. Hamilton., Op. cit., pp.1-3.
- 28) Hall Stuart and T. Jefferson, *Resistance Through Rituals: Youth Subculture in Post-War Britain*, (London : Matchinson & Co., Ltd., 1976), p.11.
- 29) 김민자(1987), Loc. cit.
- 30) Lynne Richards, Loc. cit.
- 31) Lillian B. Matthews, Op. cit., p.391.
- 32) Joanne B. Eicher and Tonye V. Erekosima, "Distinguishing Non-Western from Western Dress : The Concept of Cultural Authentication", Association of College Professors of Textiles and Clothing, Inc., *National Meeting Proceedings*, 1980, pp.83-84.
- 33) Karlyne A. Anspach., Loc. cit.
- 34) Karlyne A. Anspach and Yoon Hee Kwon, Loc. cit.
- 35) Lillian B. Matthews., Loc. cit.
- 36) Karlyne A. Anspach, Op. cit., p.268.
- 37)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 수학사, 1988) p.92.
- 38) 지옥순, "현대 복식 조형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7, p.22.
- 39) 民族服飾の體系, p.3.
- 40) Mary E. Roach and Kathleen E. Musa, Op. cit., p.8.
- 41) Hans Mützel, *Vom Lendenschurz zur Modetracht*, (Berlin : Widder-Verlag, 1925), quoted in 고복남, 한국 의복의 유형과 양식, (서울 : 집문당, 1987), p.15.
- 42) J.C. Flügel,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 The Hogarth Press, 1930), pp.122-136.
- 43) Marilyn J. Horn and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 의복 : 제2의 피부, (서울 : 도서출판 까치, 1988), pp.52-63.
- 44) James Laver, *The Concise History of Costume and Fashion*, (N.Y. : Charles Scribner's Sons., 1969), pp.6-23.
- 45) 小川安朗, 體系被服學, (東京 : 光生館, 1979), pp. 230-233.
- 46) François Boucher,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London : Thames and Hudson, 1967b) p.12, quoted in Mary E. Roach and Kathleen E. Musa, Op. cit., p.8.
- 47) Marilyn R. DeLong, "Analysis of Costume Visual Form", *J.H.E.*, 60(19), (December 1968), pp. 784-788.
- 48) Marilyn R. DeLong, *The way we look*, (Ames : Iowa State Univ. Press, 1987), pp.3-35.
- 49) Mary E. Roach and Joanne B. Eicher, *The Visible Self: Perspectives on Dress*,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Inc., 1973), pp.81-92.
- 50) Hilda Mayer Buckley, "Toward an Operational Definition of Dress", *C.T.R.J.*, 3(2), (1984-1985), p.2.
- 51) Marilyn J. Horn and Lois M. Gurel, Loc. cit.
- 52) James Laver, Loc. cit.
- 53) Mary E. Roach and Kathleen E. Musa, Op. cit., p.5.
- 54) Ibid., pp.1-6.
- 55) Walter A. Fairservis, Jr.(1971), Op. cit., p.16.

- 56) Ibid., p.17.
- 57) Ibid., p.38.
- 58) 박명희, “중세 서양 복식에 나타난 입체화 과정에 관한 고찰 — Bodice와 Sleeve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8, pp. 1-2.
- 59) Garland Madge, *The Changing Form of Fashion*, (N. Y. : Prager, 1970), p.5.
- 60) 박명희, Op. cit., p.3.
- 61) Ibid., p.4.
- 62) Ernest Crawley, “The Sexual Background of Dress” in Mary E. Roach and Joanne B. Eicher,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Y. : John Wiley & Sons, Inc., 1965), p.72.
- 63) Mary E. Roach and Joanne B. Eicher(1973), Op. cit., p.42.
- 64) Valerie Steele, *Fashion and Eroticism*, (N.Y. : Oxford Univ. Press, 1985), p.35.
- 65) Havelock Ellis, *Man and Woman*, (Scribner's Sons, 1904) quoted in Elizabeth B. Hurlock, *The Psychology of Dress*, (N.Y. : Arno Press, 1976), p. 144.
- 66) Ernest Crawley, Loc. cit.
- 67) Marilyn J. Horn and Lois M. Gurel, Op. cit., p. 196.
- 68) James Laver, Op. cit., p.7.
- 69) B. Rudolfsky, *Are Clothes Modern?*(Chicago : Paul Theobald, 1947) quoted in M.L. Rosencrantz, *Clothing Concepts*, (The McMillan Co., 1972).
- 70) B. Kefgen and R. Touchie-Specht,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N.Y. : McMillan Pub. Co.) quoted in 안유인, “현대 여성 일상복의 성적 이미지와 상황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p.7.
- 71) A.C. Scott, *Chinese Costume in Transition*, (Singapore : Donald Moore, 1958), p.11.
- 72) Marilyn J. Horn and Lois M. Gurel, Loc. cit.
- 73) Mary E. Roach and Joanne B. Eicher(1973), Loc. cit.
- 74) J.C. Flügel, Op. cit., p.103.
- 75) 안유인, Loc. cit.
- 76) Mary E. Roach and Joanne B. Eicher, “The Language of Personal Adornment”, in Justine M. Cordwell and Ronald A. Schwarz ed., *The Fabrics of Culture*, (The Hague : Mouton Publishers, 1979), p.19.
- 77) Wastermarck, *History of Human Marriage*, quoted in Hilaire Hiler, *From Nudity To Raiment*, (London : W & G Foyle, Ltd., 1929), p.7.
- 78) Jane Grove, *Fashion*, (Macmillan Education Ltd., 1971) p.33.
- 79) Valerie Steele, Op. cit., p.34.
- 80) Ibid., p.35.
- 81) Prudence Glynn, *Skin to Skin*,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82), p.32.
- 82) Garland Madge, Op. cit., p.2.
- 83) 박명희, Loc. cit.
- 84) Valerie Steele, Op. cit., pp.35-37.
- 85)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rient”, (Springfield : Merriam-Webster Inc., 1981).
- 86)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Orient”,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74).
- 87) Marilyn J. Horn and Lois M. Gurel. Op. cit., pp. 52-54.
- 88) Ibid., pp.54-58.
- 89) Ibid., pp.58-60.
- 90) Mary D. Tranquillo, *Styles of Fashion*, (N.Y. : Van Nostrand Reinhold Co., 1984), p.16.
- 91) Marilyn R. DeLong(1987), Loc. cit.
- 92) Mary E. Roach and Joanne B. Eicher(1973), Loc. cit.
- 93) 박명희, Op. cit., pp.1-2.
- 94) Marilyn J. Horn and Lois M. Gurel, Loc., cit.
- 95) Garland Madge, Loc. cit.
- 96) Prudence Glynn(1982), Op. cit., p.32.
- 97) 박명희, Op. cit., p.4.
- 98) A.C. Scott, Loc. cit.
- 99) J.C. Flügel, Op. cit., pp.122-136.
- 100) 안유인, Op. cit., p.6.